

사대강사업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뮌헨에 사시는 분들은 뮌헨을 흐르는 이자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실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도심 휴식처입니다. 근래에 이자강은 150년 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반듯하던 강변의 제방을 헐고 범람지와 습지를 다시 재생시키는 재자연화 공사 덕분에지요. 도시를 관통하는 8km 구간의 재자연화 공사는 10년의 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0년의 공사기간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홍수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며 강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이 공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작입니다. 완공 직후에 역사적인 강우량을 기록한 해에도 새로 조성한 범람지 덕분에 홍수를 비껴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휴양지로서의 가치는 누가 봐도 탐이 날 지경이어서 미국 LA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요즘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자강 뿐이 아닙니다. 세계 제일의 교통량을 자랑하는 내륙수로인 라인강에서도 재자연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뿐이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요즘 이렇게 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과거에 자연하천에 손을 대어 물길을 인공적 통로에 가두었던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 후유증이란 홍수가 점점 심해지는 현상, 그리고 강바닥이 패어 낮아지면서 지하수가 땅속 깊이 숨어버리는 현상입니다. 주변의 토양과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자강과 똑같은 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홍수를 막고 물을 깨끗하게 할 목적으로 강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형태는 독일과 정반대입니다. 자연적으로 구불구불 흐르던 강에 콘크리트로 수중보와 제방을 쌓고 물을 가두는 공사를 하느라고 중장비로 강바닥을 파고 폭약까지 써가며 발파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은 지구상 다른 나라의 자연과 어떻게 다르길래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반대되는 공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자연의 특성상 이런 공사가 문제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공사를 시작했을까요? 정부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전국에 걸친 634km 구간의 환경조사를 4개월 안에, 문화재 조사를 2개월 안에 끝내고는 지난 11월에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기 전에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게을러서 8km 구간의 이자강 공사를 준비하는 데 10년, 공사하는 데 10년씩이나 걸렸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70%가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3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반대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국민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교수, 변호사 등 명망 있는 인사들과 각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금 국민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금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늘 고국을 향해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나라사랑이자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자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사대강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6일 뮌헨에서 임혜지 드림

*제 홈페이지 www.hanamana.de/hana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독일에서 국민소송 모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은행 계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유로도 좋고 5유로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성금은 제가 알뜰하게 관리해서 한국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Kt.Nr. 04 212 514 01

Commerzbank München

BLZ. 700 800 00

Name: Hea-Jee Im